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생산자 물가지수 3년만에 최고치 상승
- WSJ: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하락했다
- Bloomberg: 연방 재무장관, "연준 금리 인하 요구하는 건 아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2년물과 5년물 금리, 5월 이래 최저치
- Bloomberg: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값 보합세

[인공지능]

- Bloomberg: 오라클, AI 비교 과다로 클라우드 부문 인력 축소

[자동차]

- YahooFinance: 자동차 보험 가격, 정상 수준으로 회복중

[오일]

- Bloomberg: 유가 하락...내년 공급 과잉 리스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여행업계 전망 안정세...미 고소득층 여행 수요 늘어
- Bloomberg: Airbnb, 체크인 가까워질 때까지 결제 연기 허용
- CNBC: Cava·Chipotle 등 대중 패스트 식당 체인점, 소비 침체로 타격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Rise by Most in Three Years on Services 미 생산자 물가지수 3년만에 최고치 상승

- 7월 미 도매 물가가 3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기업들이 관세 관련 수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연방 통계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6월보다 0.9% 증가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였던 지난 2022년 6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 특히 서비스 비용은 지난달보다 1.1% 높아 지난 2022년 3월 이래 가장 높았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상품 도매 물가는 0.4%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WSJ: U.S.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하락했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22만 4천 건으로 하락했다. 전주에는 해당 건수가 22만 7천 건이였다.
- 실업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계속 수당을 청구하는 전체 건수도 1백95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 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안정적이며 큰 해고 규모는 없다.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은 둔화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Bessent Says He's Not Pushing Fed Cuts, Just Touting Models

연방 재무장관, “연준 금리 인하 요구하는 건 아니다”

- 최근 연준이 금리를 1.5%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 연방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나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중립 금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략 1.5%의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 한편 파월 의장은 최근에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중립 금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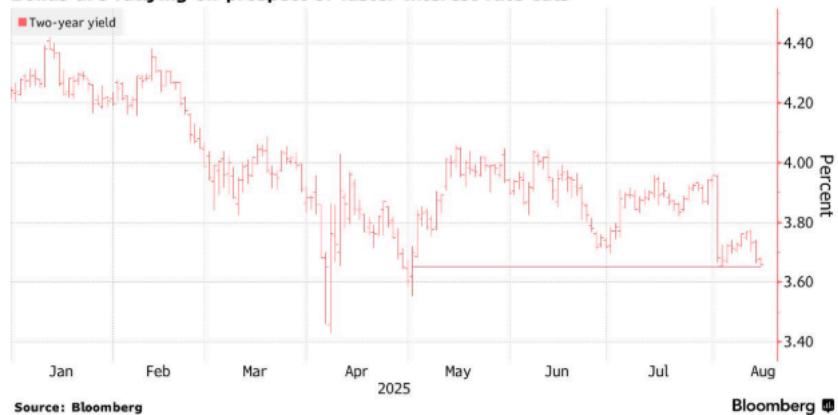
Bloomberg: US Two-Year, Five-Year Yields Fall to Lowest Levels Since May

미 국채 2년물과 5년물 금리, 5월 이래 최저치

- 미 단기물 국채 금리가 지난 3개월여 기간 중에 가장 낮게 떨어졌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올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 2년물 국채 금리는 2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3.65%로 지난 5월 1일 이래 가장 낮았다. 금리 스왑은 다음 달에 금리가 0.25% 인하될 것이라는 점을 가격에 거의 반영하고 있다.
- MUFG의 매크로 미 전략가인 George Goncalves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0.5% 인하한다면 단기와 장기물 국채는 랠리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연준이 그동안 금리 정책 조정을 오래 늦추었다는 신호로 받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US Two-Year Yield Falls to Lowest Level Since May

Bonds are rallying on prospect of faster interest rate cut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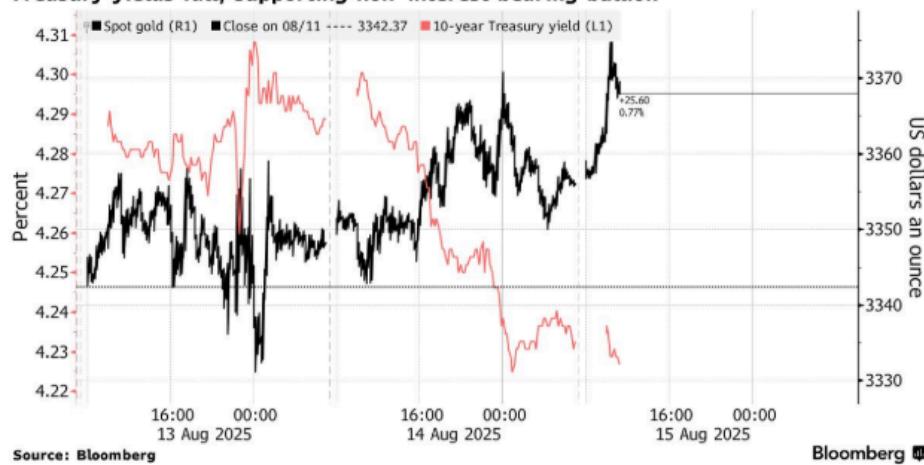
Bloomberg: Gold Steadies as Traders Look for Clues on Fed's Rate Path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값 보합세

- 연방 재무장관의 금리 인하 압력 발언 후에 트레이더들이 다음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을 늘리면서 금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차입 지용이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컨센서스는 다음 달에 금리가 0.25%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금값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하는 지정학적 요인 및 무역 갈등 때문에 상승했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을 매입해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Gold Edges Up on Fed Rate Cut Bets

Treasury yields fall, supporting non-interest bearing bullion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Oracle Cuts Cloud Division Jobs Amid Surge in AI Spending

오라클, AI 비용 과다로 클라우드 부문 인력 축소

- 오라클은 AI 인프라에 버겁게 투자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부문의 인력을 줄이고 있다.
- 관련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일부 감축은 성과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부문은 계속 고용은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회사 클라우드 부문은 현재 모멘텀을 받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급격한 비용에 대응하고 있으며, 작년 재정 연도에는 현금 흐름에 압박을 받았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YahooFinance: Some good inflation news: Car insurance is falling back in line

자동차 보험 가격, 정상 수준으로 회복 중

-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 5년간 60%나 상승하여 현재는 월 평균 약 213달러에 달했다. 이제는 보험료가 연간 3,000달러를 넘어가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 자동차 보험료는 팬데믹 초기부터 반도체 공급 부족 등 공급망 차질로 급등해왔다. 자동차 가격이 증가하고, 센서나 프로세서 등 디지털 기술이 수리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또한, 기상 악화가 심화되어 더 많은 차량이 파손되고 있다.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보험사의 비용이 증가했고, 보험사들은 흑자 전환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 온 것이다.
- 연간 자동차 보험 인상률이 작년 4월 23%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는 훨씬 낮은 5.3%로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YahooFinance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prices slip as industry faces record surplus next year

유가 하락...내년 공급 과잉 리스크 예상

- 원유 업계의 과잉 공급 위험이 커지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
-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6% 하락해 배럴당 62달러를 상회했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65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2개월 만에 304만 배럴로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2026년 세계 석유 공급량이 수요를 하루 296만 배럴씩 앞지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시장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YahooFinance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ravel-Industry Outlook Stabilizes as Higher- Income Americans

Pack Their Bags

여행업계 전망 안정세...미 고소득층 여행 수요 늘어

- 미국 고소득층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행 산업이 더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아메리칸, 델타 등 항공사는 국제선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국내선 판매는 부진했다고 밝혔다. 하얏트와 같은 호텔도 해외 여행지의 고급 호텔 부문에서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미국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집에서 가까운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거나, 여행을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 이 소비자들은 여행 직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행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후 물질보다 경험을 우선시하게 되었지만, 가격이 더 비싸지면서 저소득층 가구들에는 더 큰 부담을 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WSJ 기사

Bloomberg: Airbnb Lets US Guests Defer Payments Until Closer to Check-In

Airbnb, 체크인 가까워질 때까지 결제 연기 허용

- Airbnb가 사전 예약을 꺼리는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사전 지불 없이 일부 여행을 예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Reserve now, Pay later”이라 불리는 이 기능은 미국 내 숙소에 유연한 취소정책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 조회 및 이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들은 연말까지 예약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새로운 기능이 이러한 둔화세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loomberg 기사

CNBC: Cava, Chipotle and other fast-casual restaurant chains are finally hit by consumer slowdown

Cava·Chipotle 등 대중 패스트 식당 체인점, 소비 침체로 타격

- 레스토랑 업계가 전반적으로 방문객 감소 및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아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Cava는 2.1%의 매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Sweetgreen은 2분기 연속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2분기 실적을 마감하며 트래픽이 다시 증가했고, 7월까지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출이 점점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NBC 기사

[보고서]**미국 중국산 수입 비중 12%로 뚝...2003년 이후 최저**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2%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 12%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인용, 12개월 이동 평균 자료 기준으로 미국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현재 12%로 떨어졌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